

잡생각

이광진*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근삼의 「원고지」는 어린 나에게 신선하면서도 인상적인 작품으로 다가왔다. 영국 신고전주의 작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과장이며 풍자 기법을 주로 사용한 이 작품을 즐겁게 감상했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공이 교수, 그것도 영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라는 사실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많은 세월이 흘러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는 나에게 이 작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당시의 원고지인 컴퓨터 앞에 앉아 기계적으로 논문 작업을 해야만 하는 나로서는 논문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그저 아무 쓸모없는 ‘잡생각’일 뿐이라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많은 생각을 꼭꼭 누른 채 오로지 논문과 관련된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며 마치 원시인이 동굴 속에서 생활하듯 연구실이라는 동굴에서 원시인 생활을 이어간다.

[잡생각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polarization)가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 사상적, 사회적 양극화는 정말 문제일 수도 있고 양극화는 해소되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영어 속담에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에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사상의 양극화를 예로 든다면, 20세기 중반 이후 [그들을 무책임한 지식인 나부랭이들이라고 판단하는, 내가 혐오하는] 유럽 지식인들의 주도로 이성중심주의를 배격하고, 또한 절대적인 ‘진리’를 옹호하는 종교와 전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개인의 진리, 개인의 가치, 개인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변해갔다. 권위(authority)는 더 이상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오히려 반권위주의적 태도가 장려되는 상황 속에서 마치 성경의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것이 유튜브나 social media에서 유통되는 고전적 의미에서 ‘authority’가 확보되지 못한 정보를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재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고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자기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며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사상의 중간지대보다는 양극으로 물리케 마련인 것이다. 자신과 다른 극에 있는 사람이나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의 균형 잡힌 견해를 접하고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중립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득할 철학적 당위가 이미 제거된 상태라는 것이다.

[잡생각 #2]

“탈락률”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일까? “Change the word, change the world.”를 수업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미국인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단어의 선택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단어의 선정과 변경은 정치적 투쟁과 같다. 탈락이라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단어가 가지는 포괄적 의미가 이 단어가 활용되는 모든 곳에서 고스란히 적용되어 그 의도와 상관없이 파괴적인 파괴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 적용한 그는 자기 자식이 대학에 진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적성에 맞는 과로 혹은 다른 대학으로 옮길

때 “내 자식은 탈락했어요”라고 표현할까? 그런 변화의 노력을 굳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뱃 담아 “탈락”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싶을까? 만약 자기 자식을 생각하며 “개선율” 혹은 “발전율” 등으로 표현했다면 그것이 지금 대학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잡생각 #3]

잡생각 #2는 또 다른 잡생각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이 학교를 왜 떠나는 것일까? 그것이 반드시 대학의 잘못일까? 교수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해결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일까?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대학입시를 앞둔 혹은 그것을 지나온 학생과 부모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 대학평가 방식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암기해 머리와 가슴에 새긴 “서-연-고-성-서 . . .”로 이어지는 대학 서열화다. 그 서열이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그 서열에서 한 단계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성공이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서열의 공고화와 간극의 크기를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 즉 주로 학원가다. 그들은 한 단계 아래의 대학으로 가는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믿게 만들어야, 많은 돈을 써서라도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이 곧 자신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그 서열화에 이바지하는 또 다른 요인은 취업시장에서의 학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취업시장에서 학벌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예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취업에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20~30년 전에 비해 지금도 그것이 비슷하거나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물론 아직도 학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학원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학벌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입시생들에게, 그리고 반수와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정보는 거의 없다. 무조건 한 등급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겐 득이 되며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교수인 나는 무슨 수로 그 마음을 돌리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막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탈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그 사람은 자기 자녀가 반수 혹은 재수하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못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을 “탈락”으로부터 구조해 준 너무나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할까?

[잡생각 #4]

저출산이 문제라는데... 그것이 왜 ‘문제’일까? 199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줄곧 추진해오던 정부가 200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기조를 바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산아제한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추진한 것 아닌가? 산아제한을 추진할 때는 어떤 문제를 예상했기에 줄기차게 그 정책을 고수했을까? 지금은 적어도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닌가?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출산 장려 정책도 그 정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도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출산하면 정부에서 취업을 보장해준다는 것인가?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 자동화율과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는 깊게 연관된 것 같은데 향후 더 가속화될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 노년층의 증가가 문제라는데,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연령대별 건강이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젊어지는 상황이라면 ‘노인’의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노년층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라면 생산 인구에 포함되는 연령층을 늘

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젊은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에 의지가 별로 없는데, 효과 없는 출산 장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잡생각 #5]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왜 그것이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만이 유일한 결정 방식일까? Michael Sandel 교수가 『What Money Can't Buy』에서 보여주듯 시장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인데... 공으로 사각의 그물을 출렁이게 만드는 것과 길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는 것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전자의 능력이 희귀했지만 후자의 능력이 희귀하지 않다는 것으로만 가치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2000년대 전후로 우리 사회에서 현저히 드러나는 현상은 소위 전문직의 사무직화이다. 그 전에 사회의 지식인/지성인의 역할을 담지했던 법조인, 의료인, 교수 등 전문직이 시장 논리에 내몰리면서 독립성을 상실하고 자본에 고용된 단순 직원의 역할로 바뀌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회사원에 비하면 아직도 조금은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변화(혹은 퇴화)되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 대형 병원이나 로펌의 직원으로 비록 고수익의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전과 같이 독립적이지는 못하다. 그리고 그런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교수이다. 학교가 하나의 회사처럼 인식되고, 학생이 고객으로 인정되면서 교수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식인과 선생으로서 때로는 학생들과 사회에게 쓴소리하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거침없이 비판하거나 힘든 교육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

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에 쓴소리를 해보아야 이제 더 이상 사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회사에서 고객 만족이라는 ‘슬로모’의 무한경쟁의 시장구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퇴출당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이 시장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수요는 급변한다. 고객의 요구는 늘 바뀌기 때문에 공급자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에 뒤처지는 기업은 퇴출당한다. 그것이 시장의 논리이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 그 수요는 학생들의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도 있다. 한 학문이 당장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 지식을 공급해야 역할도 감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역할을 하는 교수 자원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많은 개인적/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탄성(혹은 회복력, *resilience*)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기에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학(史學)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진다고 치자. 그래서 그 전공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사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희귀해지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무슨 이유든 우리 사회가 사학에 대한 수요가 늘고 필요성이 다시 커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은 그 필요에 대처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은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학들이 기초 학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조처하지 않고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지도 모르겠다. *Morris Berman*의 주장대로 대학이 이런 특수성을 간과한다면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치의 결정 방식에 관해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 * * *

동굴에 앉아 별 잡스러운 생각으로 몽상에 빠진 원시인은, 쓸데없는 잡

생각 하지 말고 기계처럼 글이나 쓰라는 「원고지」의 ‘감독관’이 때리는 채찍을 얻어맞고 정신을 차린다. 논문이나 써야지… 다시는 잡생각을 안 하리라 다짐하지만, 또 떠오르는 이런저런 잡생각으로 논문의 완성은 한 없이 늦어진다.

